

“추미애 폭거 사과” vs “정운찬 자료 내리”

여야 인사청문회 곳곳 파열음...비난전 격화 ‘이귀남 청문’ 다운 계약서·차명거래 공방도

9·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강운태·박상돈·이정희 의원 등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소득·재산·납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직적인 청문 방해 세력이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보이콧’으로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된 약속사항이며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일개 상임위원장의 폭거를 방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재건축 아파트 2채에 대한 차명 소유 의혹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시인한 위장전입뿐 아니라 다운계약서를 통한 소득

세 탈루, 차명거래 등을 통해 주민등록법과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 3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에 서울 이촌동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며 “등기부등본을 떼어내며 동생이 매입한 뒤 이 후보자의 부인이 가등기한 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법은

통상 배우자가 동생 명의로 매입했다고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연 의원도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에 이어 처남 명의의 아파트를 후보자 부인이 가등기한 사실을 이어 제시하면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다. 사실상 명의 수탁자는 장모, 명의 신탁자는 부인이어서 부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며 “후보자가 이걸 알았다면 명의신탁 방조죄로 후보자도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파트가 처남 명의인 건 맞다”며 “장모가 처남이 재산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처분해서 쓸 가능성 있

어 처 명의로 해놨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와 관련, “결론적으로 국보법은 존치돼야 한다”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되며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지휘권을 받듯이 경찰도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는 게 맞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사형 집행 문제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취입하면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jkpark@kwangju.co.kr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삼고초려 손학규 불러낼까?

민주당 수원 장안 공천 공식화 송영길 최고 추천 보내 설득

민주당이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수원 장안 공천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당 지도부는 손 전 대표와 가까운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출마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

애초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손 전 대표는 이처법 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설득을 계속하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수원 장안이 이번 10월 재보선 승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손 전 대표의 출마 카드가 선거 관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강력한 ‘동인(動因)’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지율 정체에 빠진 당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수원 장안 경기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손 전 대표의 장안 출마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날 밤에는 손 전 대표가 참가 중인 춘천에 측근 인사인 송영길 최고위원을 보내 출마를 설득했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현 지역위원장이 뛰고 있는 수원

장안에 출마하는 상황 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즉답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최고위원은 손 전 대표와의 만남 후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손 상임고문은 종로구민과의 약속을 버리고 후배가 열심히 뛰고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것을 스스로 납득할 수 없고,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에 대해 인안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끌어다 공천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최고위원은 “수원 장안은 손 고문이 아니면 이기기 어려운 곳”이라며 특히 현 지역위원장이 손 고문의 출마를 지지하고 있고 그의 복귀가 당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 전 대표를 설득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손 전 대표의 출마가 왜 필요한지 등 정국 당의 공식 입장을 갖고 손 전 대표를 다시 찾은 예정이다. 정세균 대표도 조만간 손 전 대표를 만나 직접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연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소비세 도입, 교육재정 4,600억 추가 감소”

민주당 김영진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17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4천600억 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교육재정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 예산액은 2조1천316억 원에 이르며 내년에도 1조7천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막대한 지방재정 상환, 이차 부담



으로 지방교육자치는 빛바림에 질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감소분을 교부금을 인상과 시도 전출금 확대 등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교부금율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시도 전출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강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희영 후보자 장남 병역 처분 의혹”

민주당 김춘진 의원 제기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병역처분이 편법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의 장남인 정모(28)씨는 2005년 8월 병역 신체검사서서 현역병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6년 9월 신경정신과질환을 사유로 공익근무 대상인 4급 보충역으로 최종 판정, 2007년 2월부터 2년간 공익근무로 복무한 뒤 소집해제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씨는 3급 판정을 받은 한달 반 후인 2005년 10월부터 신경정

신과 질환으로 2차례 재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의 병명은 만성질환이라는 특징이 있고 병역처분이 정당하다면 진료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백 후보자측이 자료제출을 거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백 후보자가 2000년 12월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한 채(142㎡)를 살 때 기준시가는 4억7천200만원이었지만 검인계약사상 거래가인 1억8천400만원으로 신고했고 이 아파트를 2개월 만에 매도했다”며 취득세 및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최경환·주호영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지경위·정무위

국회 지식경제위와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지경위 보고서에서는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위원회 차원의 의견은 담지 않았고 청문회에서의 주요 질의·답변 요지 등만 수록됐다.

다만, 민주당은 전체회의의 발언을 통해 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표명했다.

정무위 보고서는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 경력을 지닌 후보자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간 소통의 채널인 특임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는 그러나 “소위 입법전쟁 과정에서 앞장선 것에 비해 야당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고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의 후과 부등산 거래 등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에 부적격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지연기자 jkpark@kwangju.co.kr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용직 대륙역대 소방직 전문학원

국채유일 시험경과 동행 소방채력증경기 도입 소방채력증경기 무료체험

가장양재적인 수검료 + 교재 5원 무료

6개월 합격학원 90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채력해결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232-0232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행정직/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소방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경찰직

학원선수는 실적입니다.

2009년 국가직 388명 합격
2009년 서울시 지방직 309명 합격
2009년 전남지방직 99명 합격
2009년 광주지방직 119명 합격
2009년 경기지방직 127명 합격
2009년 합격자 한빛집합체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사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강 10월 5일

종합/단과반 (호남유일 특수반 첫선도!)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9월야간반

= 호남유일 야간반 개설 =

첫개강 > 10월 5일

강의시간 19:00 ~ 22:50

기초부터 심화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름강좌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